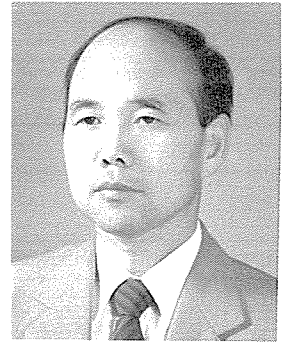


기획특집 <4>

UR과 식량대책

具千書

(단국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곡물 自給率 35%로 急落 농업발전체제 정비 절실

아프리카 餓死 수백만명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점차 식량문제에 대하여 둔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여도 또 아프리카에서 수백만명이 먹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죽어도 우리와는 전혀 관련없는 일로 치부하고 있다.

즉 인류가 수렵채취생활을 하던 약 1백만년 동안 인구가 두배가 되는 데에는 평균 2~20만년이 걸렸었다. 그러나 인류가 수렵, 채취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옮겨오면서 그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되었고 그것이 산업사회로 되면서 가속이 붙어 최근에 이르러서는 인구가 두배가 되는 데에는 불과 30~35년이 걸리고 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지구는 감당할 수 없는 인구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진기한 지

역들은 대개가 옛날에는 지구상에서 사람살기가 가장 적합했던 곳으로 따라서 사람들이 별로 식량걱정을 하지 않은 곳이었다. 이제 그들의 땅은 황폐하고 주위 사람들은 그들을 돌보려 하지 않으며 정치가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노려 주민들을 돌보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속에서 사막

화된 땅은 1년에 3km의 속도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UR협상이 끝이 난 이때 (1)과연 우리나라의 식량사정은 어떠한가? (2)이를 뒷받침하는 농업의 장래는? (3)그리고 앞으로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이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농진청은 유색미, 대립미, 향미 등 이색품종을 개발해 쌀용도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유색미는 기존쌀과 색이 다른 것이고 대립미는 쌀알이 보통보다 두배 정도 큰 것이며 향미는 쌀의 향기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은 그 견본품

〈표1〉우리나라 주요곡물의 생산 및 수급현황

(단위 : 1000MT)

	1975			1980			1992		
	생산	수입	생산비율	생산	수입	생산비율	생산	수입	생산비율
쌀	4,669	481	90.7	3,550	580	85.9	5,330	-	100.0
보리	1,700	354	82.8	810	-	100.0	314	134	70.0
밀	97	1,703	5.4	92	1,810	4.8	1	3,856	0.0
옥수수	54	548	9.0	154	2,234	6.4	93	6386	1.4
기타곡류	47	-	100.0	20	-	100.0	13	179	4.5
계	6,567	3,086	68.0	4626	4624	50.0	5751	10,555	35.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주 : 생산비율은 국내생산량/(국내생산량+수입)

있게 되었다.

인류의 역사를 조심스럽게 검토하여 보면 인류의 활동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음식의 획득과 이를 저장, 수송 또는 분배하고 또 이를 조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인류는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형국의 길을 걸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와 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어떤 나라이건 그들 구성원에게 충분한 먹거리를 공급하지 못하면 멸망하고 말았다. 즉 먹는 문제는 지상(至上)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은 동서양의 구분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열강(列強)들이 70% 이상의 식량의 자급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곡물의 자급율은 35%내외로 떨어져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표1참조) 무역자유화의 진전으로 이 수치는 더욱 떨

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래에는 양곡 뿐이 아니라 소고기, 양고기로부터 심지어는 고사리 더덕에 이르기까지 외국으로부터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어 이대로 방치해 두면 경쟁에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땅을 버리고 농촌을 떠나게 될 것이며 우리 농토는 황폐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식량을 거머쥔 국제 곡물대상(메이저)이나 식량공급국

〈표2〉국별 주요식품 자급율

(단위 : 5%)

국명	연도	곡류	육류	유지류
한국	1992	35	92	6
일본	1991	29	67	24
미국	1988	109	97	101
영국	1988	105	81	47
캐나다	1988	147	115	100
프랑스	1988	222	101	89
서독	1988	106	89	121
스페인	1988	113	98	137
스웨덴	1988	103	102	72

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약 8천~1만년 전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농경(農耕)이 시작되었고 이 농경이 시작된 지역의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곳 주민들이 즐겨 먹는 기본이 되는 곡식이 있었다. 예를 들면 중동지역 및 북아프리카에서는 밀, 미주에서는 옥수수,

그리고 동북아 및 동남아 그리고 인도 일부지역에서는 쌀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쌀과 콩의 열량이 가장 높아 이 두가지 곡물을 재배하여 주로 그것을 먹고 있는 동아시아지역과 일부 동남아시아지역의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인구도 이에 상응하여 급증하였다.

이에 대비하여 밀이나 옥수수 재배 지역은 초기에는 문화적으로 융성하였으나 유럽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세월이 지나면서 황폐화되고 급기야는 사막화되어 빛나는 문화유산들은 하나둘 사막에 묻혀갔다.

또한 쌀과 콩은 밀, 보리, 옥수수, 호밀, 조 등이 갖고 있지 못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즉 대부분의 식량작물은 그것이 성장하고 또 막대한 양의 열매(곡식)를 생산하기 위하여 매우 많은 양의 비료를 필요로 한다. 약간의 재와 사람 또는 가축의 분뇨가 비료로 쓰여지는 시대에 있어서는 새로운 땅도 3년만 곡물을 경작하면 비료분이 떨어져 더 이상 쓸모없이 되어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나서

〈표3〉주요곡물의 함유열량과 단백질 및 지방질

(100g당)

	열량 (Kcal)	단백질 (g)	지방질 (g)
밀가루	350	10.7	1.0
쌀	366	6.8	1.0
옥수수	336	9.6	3.8
감자	80	1.5	0.2
고구마	100	1.0	0.5
콩	377	36.6	17.0

야 한다. 그리고 버려진 이 땅은 개발하기 전 나무가 우거졌을 때보다 더 더워져서 그곳 공기는 건조해지고 그 결과 그곳은 서서히 황폐화, 사막화해가는 것이다. 그러나 벼재배 지역은 재배하는 동안 물이 양분을 날라오고 또 논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찾아 이동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지열의 상승에 의한 건조화, 황폐화된다.

또한 콩은 그 뿌리에 기생하는 뿌리혹박테리아가 공기중의 질소성분을 고정흡수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재배하여도 일정한 수준 이하로 수량이 줄지 않아 계속 재배가 가능하여 이들 작물의 재배지역은 사막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대하였다.

다행히 1992년의 경우 쌀의 자급율은 97.4%였으나 콩의 경우는 12.02%(국내 생산량 18만3천톤)였으며, 전체 곡물의 자급율은 약 35%로 이미 우리가 소비하는 양곡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

이 무역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이 비율은 더욱 낮아져 자칫잘못하면 총체적 농업 포기현상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농업인구 10년간 40% 줄어

가장 이상적인 현상은 순수한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때 현재의 생산력 수준이나 그 이상을 유지하면서도 농민의 수가 감소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 〈표4〉를 보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농민들의 숫자는 계속 감소하여 1980년의 1천82만7천명 수준에서 90년의 6백29만6천명 수준으로 40% 이상 감소하였고, 이제 농촌에 남은 사람은 고령자나 부녀자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경종부문 전체를 볼 때 그간에 40%내외를, 과실의 경우는 156.5%나 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무역자유화 압력으로 우리는 우리 전체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농민들을 희생양으로 바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만약 농민들이 밀려오는 저가 농산물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농업을 포기하고 모두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자세한 언급은 피하고 요점만을 정리해보자.

그 첫째는 우리의 우리의 고향과 마을의 휴식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몇평 안되

는 정원을 꾸며 유지하고 조상의 묘지를 정리하고 가꾸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드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저 넓은 농토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누가 돌볼 것인가?

둘째, 10억이 넘는 중국, 6억이 넘는 인도의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있다. 앞으로 그들은 더 나은 음식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더 많은 양곡소비(사료를 포함하는)를 의미한다. 이들 새로운 용들의 수요증대는 세계곡물가격의 폭등을 가져오게 되고 그때는 우리는 마치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쌀관광을 오듯 우리도 중국이나 러시아로 쌀관광을 하러 떠나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한 국제곡물 시장을 메이저들이 쥐고 우리를 골탕먹이려 한다면 이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된다.

셋째, 우리의 1백35만3천ha의 논

〈표4〉농가인구, 농업생산지수 변동추이

(1980 = 100)

연도	농가인	경종합계			
		식량작물	채소	과실	
198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4	83.3	128.1	144.1	93.2	151.9
1985	78.7	131.1	140.6	109.2	183.7
1989	62.7	140.7	145.4	112.4	256.5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통계연보를 기초로 계산
주 : 여기에는 식량작물, 채소, 과실, 특용작물, 약용작물, 양송이, 전매작물 및 밭잡이 포함된다.

은 폭우가 쏟아질 때 그 물을 받아 가두어두고 더운 여름 동안 우리 강산을 시원하게 유지하여 주고 있다. 즉 우리는 이 넓이의 땀을 유지하고 있어서 홍수와 가뭄, 그리고 심한 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빗물이 눈에 의해서 받아 보전되어 서서히 흘러내리지 않고 한꺼번에 강으로 흘러들었을 때 강변에 있는 많은 도시와 공장들은 물바다가 될 것이며 가뭄이 장기화 되면 지하수가 고갈되어 새로운 형태의 파동이 예상되는 것이다.

이상에 열거한 세가지는 다른 경제, 사회적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이 밖에도 도시의 주택문제, 도시 빈민 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비용, 농기업 관련 산업의 붕괴 등에 따른 고용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학문적·기술적 뒷받침 절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민, 농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농어촌발전위원회(農發委)를 구성하고 이곳에서의 건의를 토대로 농어촌발전대책, 농정개혁추진방안을 수립 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 대강을 살펴보면 농어업발전 주제로 가족전업(專業) 농가 15만호를 육성하고 농업회사법인체 제도를 도입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방안으로는 (1)농지제도를 개혁하여 경영규모확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2) 농어민이 생산, 유통, 가공, 판매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품목별



OUR의 타결로 15개 기초농산물이 완전개방됨에 따라 우리 농업은 대대적인 변신이 불가피하게 됐다. 농민들의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시위 장면.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며 (3)기계화, 자동화 생산기반을 정비하려 하고 있다. 동시에 집약적인 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환경보전을 기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고품질의 농수산물 생산, 수출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고 이를 위한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1999년까지 42조원을 투자, 융자하며, 그 이후에도 이런 규모의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또한 이 지원사업중에는 (가)영세농 대책 (나)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다)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민 후생복지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같은 막대한 자금에 대한 세부투자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 자금은 자칫하면 일부 특수층을 위해 낭비되거나 아니면 오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안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어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돈만 가지고 해결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응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농업부문만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학계의 기술만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현대의 농업은 일, 이·삼차 산업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학문적·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각 분야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하고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이 농업부문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여러 전문가들의 농업발전을 위한 각각의 분야에서의 헌신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SY**